

시사만화의 텍스트성 연구*

이 성 연**

<목 차>

I. 머리말

II. 시사만화의 텍스트 구조

III. 시사만화의 텍스트성

IV. 맺는말

【요 약】

본고의 분석 대상 시사만화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들인데, 시사만화의 그림 텍스트와 언어 텍스트의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응결성, 상황성,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 등을 고찰했다.

언어텍스트에서 응결성은 생략법, 부분적 회기법과 병행구문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생략법은 지면의 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추론의 과정을 통한 독자들의 인지활성화를 극대화시킨다. 정보성에서는, 수용자들의 기존 인지구조 속에 있는 기존의 사건텍스트 기사를 불러내게 하여 시사만화 텍스트의 내용을 재가공하여 이해하게 한다.

의도성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의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여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지만, 수용자들은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서 용인성이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성립되거나 되지 않거나 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언어 텍스트와 사건기사 텍스트 등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운데, 수용자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등도 작용하여 보다 큰 텍스트구조를 형성하면서 텍스트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I. 머리말

시사만화가 인기 있는 대중매체 장르의 하나로 잡게 된 것은 텍스트 수용자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¹⁾에 빨리 읽고 당시의 사회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텍스트 생산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려는 뜻의 우회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양태영 2000).

시사만화의 생명은 은유적 풍자에 있는데 풍자만화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카툰(cartoon)²⁾은 ‘초벌 그림’의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카르톤(cartone)에서 유래한다. 형태를 기준으로 시사만화를 분류하면 ‘만평으로 불리는 한 칸³⁾ 만화, 주로 사회면에 실리는 네 칸 만화, 사람의 얼굴 등을 특징적·희극적으로 묘사하는 캐리커처(caricature), 최근 유행하는 에세이 만화’ 등의 4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한 칸 만화와 네 칸 짜리 시사만화는

1) 7초만에 모든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통해 더 강력한 임팩트를 독자에게 준다(김용수 1983).

2) 1841년 영국에서 벽화 그림을 현상 공모했는데 수준 미달인 응모 작품들이 의외로 많았다. 만화잡지 『펀치』에 어린이의 낙서 같은 이 그림들이 ‘Punchs Cartoons’라는 제목으로 실리자 뜻밖에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카툰’이 만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칸(panel)은 만화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대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독립해 있으면서도 주위의 그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그림 단위인데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인 틀을 이룬다(이태영 외 200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걸쳐 시사성을 지닌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날카로운 풍자와 은유를 통해 드러낸다.

시사만화는 긴밀히 결합된 짧은 언어형식과 간단한 그림 텍스트 안에 생산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상황맥락 이해를 위한 고도의 인지적 활성화를 요구한다. 텍스트 수용자가 시사만화를 읽을 때 각 칸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배경 그림은 직관적인 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언어텍스트는 비직관적 형상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칸과 칸을 통해 분절된 프레임⁴⁾은 수용자의 상상력 속에서 비직관적인 형상으로서 새롭게 인지된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상태는 ‘칸에 그려진 전체적인 그림→등장인물→언어 텍스트→연결되는 프레임→전체 보기’의 순서를 지닌다.

시사만화 텍스트 수용자들은 기본적인 프레임과 스킴 속에서 일차적인 의미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선형적 텍스트 요인이 되는 언어텍스트의 응결성, 상황성,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 등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의 심층 메시지까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시사만화의 텍스트성에 대해 고찰하겠기로 한다. 먼저 그림 텍스트와 언어 텍스트의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응결성, 상황성,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 등을 분석하겠다.

분석 대상의 시사만화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부터 3월 12일 탄핵⁵⁾ 소추안 국회 가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기각 판결’(5. 14.)까지의 탄핵 관련 사건들이다. 탄핵안 가결과 기각 판결 기간 사이에 실시된 제17대 총선(4월 15일)도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함께 다

4) 칸을 연속적인 의미로 파악할 때 프레임이라고 한다.

5) 탄핵은 고급 공무원(대통령 포함)의 직무상 위법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소추(訴追)는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루기로 한다.

시사만화의 출처는 『중앙일보』의 “김상택 만화세상”, 『조선일보』의 “조선만평”, 『한겨레』의 “미주알”과 “한겨레그림판”, 『동아일보』의 “나대로 선생” 『경향신문』의 “김용민 그림마당” 등이다.

II. 시사만화의 텍스트 구조

시사만화의 텍스트는 그림 텍스트와 언어 텍스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들 텍스트가 결합하여 텍스트 수용자에게 의미를 전달한다.

1. 그림 텍스트

그림 텍스트는 비언어적 텍스트로서 언어기호로 대체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기호들로 구성된다. 이런 기호들이 하나의 자족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텍스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응집적인 연쇄적 기호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서옥란 2003).

시사만화텍스트에 나타나는 구성 성분은 ‘등장인물, 특수기호, 배경그림, 풍선그림’ 등이 있다.

등장인물은 사람을 그린 그림으로서 언어형식을 발화하며 내용을 전개하는 중심 요소이다.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주인공과 캐리커처(caricature)⁶⁾ 그리고 주변 인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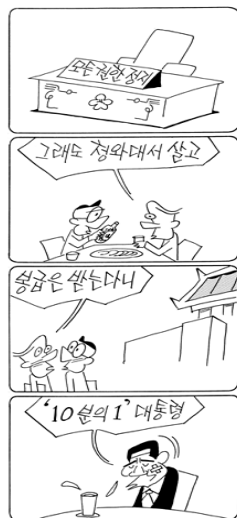
주인공은 고정적으로 등장하는데 캐리커처와 함께 나타나 메시지의 내용을 전개한다. 주인공이 혼자일 때는 얼굴 표정을 크고 자세하게 묘사한다. 등장인물의 과장된 동작, 인물과 체형의 독특성, 표정이나 생김새의 특이함 등 과장법인 ‘허풍의 미학’ 수법을 사용하는데, 만화 표현의 고정된 표

6) 독자에게 잘 알려진 사람의 얼굴 특징을 과장하여 재미있게 그린 그림.

현 양식으로 정착되었다(오시오 요시타케 1996).

캐리커처는 독자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배경지식만으로 내용 이해가 가능하다.

<만화 1>에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캐리커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탄핵 전에 대선 비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노 대통령은 여당이 사용한 액수가 한나라당이 사용한 선거 비용의 1/10이 넘는다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국은 ‘1/10 발언’이 탄핵을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로 귀착되었음을 꼬집고 있다.



<만화 1>

예 : a. 주인공(정방형 원 안의 인물)

b. 캐리커처(장방형 원 안의 인물)

<만화 1> 나대로 선생(3. 13.)

특수기호는 시사만화 텍스트의 정적인 그림에 여러 가지 효과를 더해 준다. 의성어나 의태어를 형상화하여 ‘행동, 감정, 소리’ 등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황이나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평면적인 지면을 입체적으로 살려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쁨을 나타내는 기호 ‘♪, ♪, ♪’, 소리의 연장과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 ‘<’ 등을 들 수 있다.

배경그림은 텍스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시사만화 텍스트에서 등장 인물이 위치하는 공간을 그린 그림이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발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준다.

풍선그림은 등장인물의 발화를 표시하는 공간인데 말 풍선⁷⁾과 생각 구

7) 말풍선(speech ballon)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다. 원형, 사각형, 구름형, 두 개의 말풍선이 맞붙은 형 등이 있다. 말풍선의 형상에 따라 소리의 크기, 강약 등

름(thought cloud)으로 나뉜다. 등장인물의 말을 담는 장치인 말풍선은 둥글거나 혹은 네모진 모양의 풍선그림 발화자의 입 근처에서 시작하는 꼭지가 붙고 발화 내용이 그림 안에 표현된다.

생각 구름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혼잣말을 표시하는 장치인데 풍선그림에 아이스크림 머리부분 같은 동그라미들(<만화 3>)이 발화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 외에도 <만화 2> (“언거푸 악몽”, 김상택의 만화세상 3.30.)처럼 그림 전면을 펜 터치하는 독특한 수법이 있다. 이 펜 선들은 <만화 2> 명암과 원근 표현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작가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메시지를 독자와 연결시켜 주는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그림의 무수한 선들 때문에 시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런 단점도 있다.



<만화 2>

2. 언어 텍스트

시사만화의 텍스트 구조를 형성하는 언어 텍스트에는 ‘대사, 독백, 방백, 해설, 지문’ 등이 있다.

2.1 대사

만화에서 대사(dialogue)는 주로 말 풍선 안에 나타낸다. 지면의 제한

이 표현되므로 말풍선의 특징은 인물의 소리를 결정해준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대사가 중심이 된다. 대사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면서 사건 전개에 기능도 담당한다.

대사의 어휘적 특징은 먼저, 사회방언(신어⁸⁾, 은어, 유행어, 약어 등)과 지역방언 사용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자가 그림 텍스트와 사건기사 텍스트를 스키마로 추론하면 텍스트 생산자의 메시지 뜻이 쉽게 수용될 수 있다. 지역방언은 특정 지역 출신을 지시하거나 사건과 호흡에 맞는 발화 상황을 표시해준다.⁹⁾ 다음 특징으로는 표준어의 관용어¹⁰⁾, 동음이의어¹¹⁾, 흉내말 등의 사용을 들 수 있다(양태영 2000).

2.2 독백과 방백

독백(monologue)과 방백(aside)은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 혹은 상황 설명이나 사건 전개 등의 역할에 사용된다.

독백은 주로 등장인물이 자기 심정이나 주장, 의견을 텍스트 수용자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된다. 다른 인물이 옆에 있는 경우 독백은 생각 구름에 표시하기도 한다. 방백은 다른 등장인물이 무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에서 자기 심정을 말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시사만화에서 독백과 방백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쓰인 경우도 있다.

<만화 3>의 “무서워서 못살겠다.”(한겨레 그림판 3. 12.)와 <만화 4>의 “하루를 눈물로 보내겠지?”(김상택 만화세상 3. 19.) 등이 그 예이다.

8) 왕따, 첩밥통

9) “지는 무식한데, 그게 되겠어유...”(충청도)

10) 소 답 보듯(대통령이 정권에 비판적인 시국성명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을 표현함)

11) 대중탕(大衆탕, 大中탕), 여의도(女衣도, 汝矣島)

2.3 해설

시사만화의 해설(narration)은 주로 한 컷 짜리에서 제목을 통해 나타난다. 해설은 소설처럼 구성의 각도인 시점(point of view)을 지니는데 텍스트 생산자는 외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해설하는 작가 관찰자시점(3인칭시점)을 주로 취한다. <만화 4>의 “표정 들켰네!”(김상택 만화세상 3. 19.), <만화 5>의 “말 한 마디에...”(조선만평 4. 1.), <만화 6>의 “눈치 빠른 어르신”(조선만평 5. 8.) 등을 예로 들겠다.



<만화 3>



<만화 4>



<만화 5>



<만화 6>

2.4 지문

지문(description and explanation)은 해설과 대사를 뺀 나머지 부분의 글이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상황 변화를 그림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워 설명해주는 글을 뜻하기도 한다.

지문은 동작지시와 무대지시로 나뉘는데 행동을 보여주는 지문은 의태 의성어가 많이 선택된다. 장소·무대 지문은 <만화 7>의 ‘한남대교’를, 그림 대신의 설명글 지문으로는 <만화 16>의 “북악, 청와대, 비서실, 총리관저”를 들 수 있다.



<만화 7>

Ⅲ. 시사만화의 텍스트성 분석

1. 응결성

응결성(cohesion)의 목적은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가 응결성의 장치를 통해 어떤 인지적, 맥락적 효과를 얻는 데 있다. 사람의 두뇌 용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구조화된 자료들만 비교적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사용된 구조와 패턴을 재수용하여 방대한 정보량을 수정, 압축함으로써 텍스트 참여자들의 저장을 활성화시켜 텍스트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려고 한다(이성연 2002).

시사만화 텍스트에서는 그림 기호와 언어 기호가 어우러져 표층 텍스트를 이루면서 응결성을 만족시켜주는 통합 텍스트¹²⁾의 성격을 지니지만

(김영순 2001) 동시에 언어 기호로서 언어 텍스트의 응결성 장치¹³⁾를 가지게 된다. 언어 텍스트의 응결성 장치 중에서 생략법, 부분적 회기와 병행구문의 사용 빈도가 높다.

1.1 생략법

시사만화 언어 텍스트는 응결성 장치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생략법(ellipsis)’이다. ‘생략법’은 제한된 지면에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담기 때문에 텍스트 내용의 압축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생략으로 인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므로 텍스트 수용자에게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수용자에게 그림 텍스트와 언어 텍스트를 함께 주목하게 하는데 문장은 ‘명사, 명사+조사, 부사, 서술어, 상징어’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끝맺는다.

- [T1] (제목)장관 보고는 생략 : <만화 8> 김상택 만화세상(3.30.)
 [T2] (제목)소귀에 경 읽기? : <만화 9> 조선만평(3. 19.)
 [T3] (제목)말 한마디에... : <만화 5> 조선만평(4. 1.)
 [T4] (제목)결국...? : <만화 10> 김용민의 그림마당(3. 27.)
 [T5] (제목)이름만 바뀌나...? : <만화 11> 김용민의 그림마당(4. 14.)
 [T6] 낮엔 쌀쌀,
 밤엔 지글지글 : <만화 14 > 한겨레 미주알(3. 22.)

[T1]~[T6]처럼 생략법은 간결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문장 성분의 생략은 메시지의 내용이 단언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텍스트 수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특히 제목에서 서술부의 생

12) 언어적 텍스트와 통보적 성격의 텍스트 결합으로서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되며 그림 기호와 언어 기호의 결합(인쇄-통합텍스트), 그림 기호와 언어 기호의 결합 혹은 그림 기호와 소리 기호의 결합(시청각 텍스트)으로 구성된다.

13) 회기, 병행구문, 환언, 대용형, 생략, 접속표현 등.

략은 텍스트 수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텍스트 생산자가 표면상으로는 객관적 태도를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T2]는 서술어 자리에 문자부호 물음표를 사용하여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공간에 “(그것은) 소귀에 경 읽기이다.”의 명제를 활성화시켜 준다.

[T3]은 서술어 생략에는 줄임표를 사용해서 시각적 효과까지 더하면서 생략된 문장성분을 추론하게 만든다.

[T4]는 지시어 ‘사퇴 최병렬, 사퇴위기 조순형’과 최병렬 전 대표의 “우리가 우릴 ‘탄핵’한 꼴이잖아! …말좀 해봐?!”라는 언어 텍스트를 통해, 두 사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 그리고 한·민 공조로 이루어낸 탄핵이 오히려 그들을 국민들로부터 탄핵(심판)을 받게 만들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T5]는 그림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 정쟁과 갈등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16대 국회’를 희화적으로 보여주면서 생략법의 응결성 장치인 언어 텍스트를 통해 차기 17대 국회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T6]은 상징어로 끝나서 간결한 응축성과 함께 사실감을 더해준다.



<만화 8>



<만화 9>



<만화 10>



<만화 11>

1.2 부분적 회기와 병행구문

시사만화 언어 텍스트의 응결성 장치 중에서 생략법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부분적 회기 (part recurrence)와 병행구문 (parallelism)이다. 이들은 특히 네 칸 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7] a. 예전엔

b. 돈에 가려

c. 요즘은

d. 이벤트에 가려

<만화 12> 한겨레 미주알(4. 6.)

[T8] a. 선거중반...평이 제 각각

b. 돈 없는 선거!

c. 정책 없는 선거!

d. 기억력 없는 선거!

<만화 13> 한겨레 미주알(4.12.)



<만화 12>



<만화 13>

부분적 회기는 표층 표현은 같지만 이것을 다른 품사로 바꾸어 다시 사용하는 문장 표현법이다. 이미 수용자의 인지 환경에 활성화된 개념이 다른 표현으로 적용되므로 텍스트 생산자의 메시지 핵심 내용의 강조 혹은 재확인을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병행구문은 동일한 표층적 언어 형식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넣어 다시 사용하는 기법인데 행위의 반복성이나 서술 내용의 반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이성연 2002). 시사만화 언어텍스트에서는 등장 인물들의 생각 혹은 주인공의 핵심 의도를 끌어내어 부각시키는 데 많이 사용한다.

[T7]은 “돈에 → 이벤트에”의 부분적 회기와 “~에 가려”의 병행구문을 사용하여 ‘차떼기’와 ‘탄핵’의 이슈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인물, 정당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투표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T8]은 “~없는 선거”의 병행구문을 활용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지율 회복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모습에서는 ‘탄핵안 발의’와 ‘차떼기’를 유권자들이 망각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텍스트 수용자들의 인지공간에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 상황성

상황성(situationality)은 텍스트를 발화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일과 관계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현재 또는 복원 가능한 담화 상황에 적절히 연결시켜주는 요소들이다(이현호 외 1997).

텍스트를 상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텍스트 수용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통합 상황 모델에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신념, 목적 등을 주입시키는 중간조정(mediation)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중간조정은 상황점검과 상황관리가 있다. 전자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나 목적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다만 그 상황 모델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후자는 텍스트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가 텍스트 생산과정에 투입

되어 그 방향으로 텍스트의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다(이석규 2003).

- [T9] a. 여성 정계 진입
b. 온몸으로 막더니
c. 탄핵 역풍 화살
d. 누나, 어무이, 살리도
<만화 14> 한겨레 미주알(3. 27.)

- [T10] a. 반응을
b. 우째 이런 일이
c. 통곡하고 싶은 심정
d. 주가폭락 현장의 투자자
목소리였습니다
<만화 15> 나대로 선생(5.15)



<만화 14>

<만화 15>

네 칸 짜리 만화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 세 칸에서 상황점검(situation monitoring)을 진행하고 네 번째 칸에서 상황관리(situation management)를 진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T9]는 탄핵안 의결 15일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두 여성의원 영입에 비유하여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a에서는 ‘여성들의 정계 진출 욕구’를, b에서는 ‘기득권자(국회의원)의 적극 반대’를, c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후폭풍’의 상황모형을 제시하고 상황점검에 들어간다. 그리고 d에서는 지문 ‘살리도’와 대화 ‘어무이’의 방언을 통해 영남지역에서는 박근혜 의원들, 호남지역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각각 당을 구하는 구원투수로 내세우는 상황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T10]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조사(b는 영남지역, c는 비영남 지역)로 상황점검을 한다. 그런데 d에서는 주식 투자자의 주가폭락에 대한 반응으로 반전시켜서 탄핵안 기각 결정 찬성자들의 비난을 슬쩍 비껴 가는 상황관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궁극적으

로는 탄핵안 기각에 대한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기각 결정의 잘못을 드러내는 복선적인 상황관리 진행인 것이다.

이 상황관리는 수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므로 상황점검과 구분하기가 애매할 경우도 있다.

3. 의도성과 용인성

의도성(intentionality)과 용인성(acceptability)은 의사소통의 기본 요건으로서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에 의해서 수행되는 텍스트적 통화행위 전반에 관여한다(이현호 외 1997).

의도성은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텍스트에 사용된 발화체가 지식을 제공한다든가, 플랜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다든가 등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의도성을 갖춘 것이다.

용인성은 텍스트 수용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텍스트의 발화체가 수용자에게 유용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 텍스트는 용인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어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성과 용인성을 결여했다면 그 텍스트는 존재 가치가 약화되는 것이다.

시사만화 텍스트 생산자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용자의 관점에 따라 용인성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시사만화가 해당 신문사의 입장이 반영된 텍스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복합적인 기호로 이루어진 시사만화 텍스트의 의도성의 인지과정은 그림기호와 언어기호의 맥락적 지식과 그것들의 상관성 파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용인성의 수용과정에는 사건텍스트 등을 통한 일차적인 사회문화적, 정서적 상황맥락이 전제가 되지만 수용자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태도 및 윤리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그림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는 외적 의미와 내적 의미의 동시적 파악이 요구된다. 각 칸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넷째 칸에서는 프레

임을 통한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서옥란 2003).

[T11]

A. 그림 텍스트

- 배경: 북악산, 청와대, 대통령 관저, 총리관저.
- 외적 의미: 청와대에서 총리관저로 태양과 봉황이 날아감.
- 내적 의미: 대통령의 권력 이동

B. 언어 텍스트

- 제목: ‘태양·봉황’다 가네!

<만화 16> 김상택 만화세상(3. 13.)

[T11]의 그림 텍스트에서 태양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고 봉황은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한다. 텍스트 생산자는 이런 복합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력이 국무총리에게로 이동하는 권력 누수의 현상을 보여주려 한다.

일반적인 텍스트 수용자들은 우선 사건텍스트와 배경지

식과 상황맥락을 통하여 생산자의 이러한 의도성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용인성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총리관저 위에 ‘ㄱ’의 기호를 표시하여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끌어들이린 것은 지나치게 작의적인 의도성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용인성의 거침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화 16>

[T12]

A. 그림 텍스트

- 외적 의미: 노 대통령의 꿈.
탄핵 직전 상황. 이회창
씨가 수심 4444미터의 바
다에 밀어 넣음.
- 내적 의미: 위기에 처한 노
대통령. 수심 4444미터는
죽을 ‘死’자의 중복.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씨가 복수의 물귀신 작전
을 펴.



B. 언어 텍스트

- 제목: 연거푸 ‘악몽’
 - 본문: 노상감 같이 가자!
- <만화 17> 김상택 만화세상(3. 10.)

<만화 17>

[T12]는 탄핵 이틀 전, 한·민 두 야당의 압박에 직면한 노 대통령의 고민과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노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 생산자가 이회창 전 총재를 끌어들이면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처지를 은근히 반기는 의도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생산자가 표면적으로는 정치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소속 언론사의 입장이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선입견이 작용할 경우 더욱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용인성이 쉽게 성립되지만 지지하는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용인성의 성립이 약하거나 어려울 것이다.

다음, ‘대통령 탄핵안’ 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가 이루어진 <만화 18, 19>도 마찬가지이다.

[T13]

A. 그림 텍스트

- 외적 의미: 골룸과 간달프와 같이 왕을 도와 ‘반지’를 되찾음
- 내적 의미: 골룸(조순형 대표)과 간달프(최병렬 대표)는 모두 제왕의 상징인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또 얻으려 하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반지의 제왕(노 대통령)에게 돌려 줌



<만화 18>

B. 언어 텍스트

- 제목: 탄핵기각-왕의 귀환'
- 본문: 우리 덕에 대통령
두 번 하는 거...
강력해진 권력

<만화 18> 한겨레 그림판(5. 15.)

[T13]은 ‘탄핵 소추안 기각’이 컨텍스트를 이룬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패러디하여, 한·민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언어 텍스트에서 마치 그들도 골룸과 간달프처럼 왕을 도와 ‘반지’를 되찾았듯이 ‘우리 덕에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을 비꼬는 어조가 담겨 있다.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에 의하면 오히려 탄핵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권력을 되돌려 받은 대통령에 비해, 대표직을 사퇴한 두 사람의 딱한 처지를 비웃는다(서옥란 2005). 또 ‘두 번 하는 거...’에서 문장부호 줄임표를 사용하여 탄핵안 기각에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서도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성이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텍스트 수용자들에게는 용인성이 높지만 반대하는 텍스트 수용자들에게는 용인성이 낮을 것이다.

‘탄핵안 기각’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만화 18>과는 다른 의도성을 보

여주는 <만화 19>의 텍스트도 있다.

[T14]

A. 그림 텍스트

- 외적 의미: 탄핵 기각 결정문을 크게 반기는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 17대 총선 당선자들임
- 내적 의미: 일반 국민들은 환영하지 않음

B. 언어 텍스트

- 제목: 오늘은 좋은 날?
- 본문: 선거법 위반했으나 파면은 안 된다!

탄핵기각 결정문

노사모 인가봐...

소환 앞둔 선거법 위반 당선자들

<만화 19> 조선만평(5. 14.)



<만화 19>

[T14]는 탄핵 기각의 이유인 “선거법 위반했으나 파면은 안된다”에 대해 강한 풍자와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소환 앞둔 선거법 위반자’들 뿐이라고 비꼬며 그들을 ‘노사모’로 다시 비꼬아 틀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날이라는 추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핵안 기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성에 대한 용인성은 <만화 18>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시사성과 풍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설혹 텍스트 생산자(화가 혹은 신문사)의 편견이 가득 찬 의도성이 담겨있더라도 수용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용인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4. 정보성

정보성(informativity)은 제시된 텍스트 자료가 텍스트 수용자들에게 예측된 것인가 아닌가, 신정보인가 구정보인가,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말한다.

보그란테와 드레슬러(1981)는 ‘기대’, ‘예측’ 등과 관련하여 언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인 텍스트의 맥락과 상황을 중시했다. 따라서 기대하지 않은, 즉 비예측적인 언어의 선택과 배열이 실현될 때 수용자에게 텍스트의 정보성 문제가 발생한다. 예측이 어려운 언어의 배열은 정보 처리가 힘들다. 그러나 흥미 유발은 그에 반비례한다.

정보성은 언어 텍스트의 끝 부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네 칸 만화의 경우 앞의 칸에서는 예측 가능한 의미 내용, 즉 1차 정보성으로서 사실을 열거한다. 다음 칸으로 가면서 정보의 격상을 보여주며 비예측적 결과인 3차 정보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서는 수용자의 인지구조에서 새로운 지식을 활성화하여 정보성을 격하시키면서 생산자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풍자와 희화가 강한 텍스트일수록 수용자들은 웃음과 함께 생산자의 정보성을 파악하게 된다.

[T15] a. 탄핵역풍

b. 고속철 개통으로

c. 지역장벽 이제야 무너지나 했더니

d. 계층장벽 시대가 새로이...

<만화 20> 한겨레 미주알(4. 1.)

[T15]에서 세 칸 a~c는 모두 3차 정보성을 띤다. “탄핵역풍”을 통해 전국에서 열리는 촛불시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전혀 거리가 먼 고속철도가 개통된 정보를 제시하면서 2차 정보성으로 끌어올린다. 셋째 칸에서는 전국이 만나질 거리가 되어도 지역장벽이 무너지기 어렵다는 암시의 회의적인 메시지를



<만화 20>

전달하면서 3차 정보성으로 격상시킨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생산자가 일으키는 의의(sence)의 불연속성¹⁴⁾은 수용자의 인지공간을 활성화시키면서 의문에 빠뜨린다. 그리고 넷째 칸에서 대립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 즉 초고층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대박(주상 복합 고층 건물의 고액 프리미엄)이 터졌지만 빈곤층에서는 실업과 자살, 가난으로 인한 이혼 급등 등의 심각한 ‘계층장벽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1차 정보성으로의 격하를 통해 생산자의 의도를 수용자들은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풍자성이 강한 텍스트일수록 먼저 비예측적 사실인 3차 정보성을 보여주면서 의의의 불연속성을 가져오고 다음에 2차 정보성으로 격하되는 과정을 밟고 나중에 1차 정보성을 통해 웃음으로써 그 비예측성이 해소되는 특징을 가진다.

- [T16] a. 민주당 공천장
b. 저건 가짜 이게 진짜
c. 갈데까지 간 집안
d. 유권해석해도 믿을 리 없고…
<만화 21> 동아일보 나대로 선생(4. 1.)

[T16]에서 趙의 직인이 찍힌 민주당 공천장과 秋의 직인이 찍힌 민주당 공천장을 들고 출마자들이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상황 제시를 통해 수용자들은 4.15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분열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문제 제기 인지는 3차 정보성으로서 숨겨져 있다.

그러나 셋째 칸의 “갈 데까지 간 집안”이라는 언어 텍스트를 통해 2차 정보성으로 격하시키지만 아



<만화 21>

14) 표층 텍스트의 언어 구성체에서 어떤 언어 자료가 빠져 있어서 그 의의가 연결되지 않음(이현호 외 1997).

직까지 수용자들의 인지 구조에 의의의 불연속성을 가져온다. 넷째 칸에서 수용자들은 ‘선관위’ 풋말을 통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 상황과, 배경그림 ‘4월 1일 만우절’을 통해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민주당 당사자들이 유권해석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비예측성이 해소되면서 웃게 만든다.

한 칸 시사만화에서는 제목에 대부분 은유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3차 정보성을 지니게 만든다(권유라 2001).

[T17] a. 한민이

b. 점포정리, 탄핵폭탄 세일

c. 공로상

우리당 승리의 두 주역

<만화 22> 한겨레 그림판(4. 16.)



<만화 22>

[T17]는 검은 바탕에 백발자 제목 ‘한민이네’의 3차 정보성을 통해 수용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낸 다음에 b, c의 내용으로 시선을

돌려 그 의의의 불연속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최병렬·조순형 두 대표가 주도한 탄핵안 가결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음을 b에서 2차 정보로 격하시켜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그 두 사람의 공이라는 1차 정보성을 c에서 제공한다.

결국 텍스트 수용자들은 3차 정보인 ‘한민이네’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임을 알게 된다. 정보성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명시정보와 독자의 맥락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텍스트의 응집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T18] a. 총선 선거전 돌입..., 탕...‘우리당’은 어딜 간거야?

b. ‘물’ 퍼담느라..., 정동영 대구발언 과문

<만화 23> 김용민의 그림마당 4. 3.

[T18]의 텍스트를 텍스트 수용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은 먼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의 대표들이 총선거기 출발선에서 막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당’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사텍스트와 관련하여 정동영 의장의 대구에서 노인편하 발언을 상기한다. 끝으로 이런 배경지식과 텍스트 정보를 통해 노인편하 발언 파문 수습에 매달린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떠올린다.



<만화 23>

5.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텍스트 사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른 텍스트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지식은 중간조정 과정을 통해서 현재 처리하는 텍스트에 주입될 수 있다. 현재의 텍스트를 처리하는 시점과 이전에 수용했던 텍스트를 처리한 시점 사이의 시간과 처리 행위의 간격이 클수록 중간조정 과정도 커지게 된다(고영근 1999).

시사만화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사법은 비유이다. 쟁점이 되는 현안을 알기 쉽게 이미지로 묘사하거나 더 나아가 풍자하기 위해 과거의 비슷한 상황을 끌어와 현안과 엮는다. 비유가 절묘할수록 효과가 크다. 따라서 작화 당시의 비유거리를 찾아 쟁점 현안과 엮어 버무리는데 풍자적 희화의 형태인 패러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패러디는 상호텍스트성에 포함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을 일으킨 시사만화 텍스트는 주로 과거의 유명한 사건,

광고, 영화제목, TV 드라마, 유행어¹⁵⁾, 새로운 사회 방언이나 신조어 등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인다.

- [T19] a. 출구조사
 b. 드라마 같은 표심
 c “武人時代”와
 d. “女人天下”가 결합

<만화 24> 동아일보 나대로 선생(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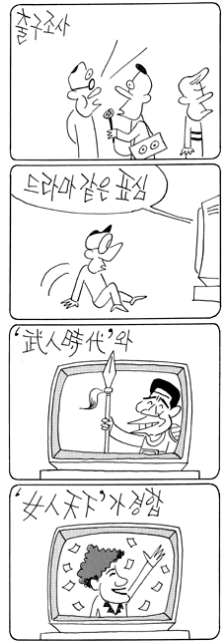
[T19]는 TV 드라마 제목 “무인시대”와 “여인천하”의 드라마의 제목을 텍스트 인유하여 17대 총선은 당의 정책이나 입후보자들의 개별적인 능력이 아닌 노 대통령과 박 총재의 양자 대결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T20] 차떼기...

책떼기...

그렇게 소심해서야 ‘정권떼기’가 되겠나?!!

<만화 25> 김용민의 그림마당(3. 18.)



<만화 24>

T20]의 “차떼기”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관계자가 두 곳의 대기업 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현금 150억원과 100억원을 실은 차를 차열쇠와 함께 넘겨받아서 유행어가 되었다. “책떼기”는 한나라당이 S그룹에서 책 형태로 포장된 112억원 상당의 채권을 전달받아서 유행어가 되었다. 텍스트 생산자가 이러한 신조어를 패러디하여 상호텍스트성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시사만화의 상호텍스트성은 세계지식을 활용하는 흔적의 추출과 구축, 재구축 과정 그리고 연속적인 추론과 확대 활성화의 활발한 작용을 필요로 한다.

15) MBC의 코미디 프로에서 개그맨 정준하에 의해 유행어가 된 “편견을 버려!” 등이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시사만화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고찰하면서, 먼저 텍스트 구조인 그림 텍스트와 언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텍스트성 측면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살펴보았다.

시사만화에서 그림 텍스트의 등장인물, 풍선그림, 특수기호, 배경그림 등은 정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반면에 언어 텍스트는 함축적, 암시적, 추상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결합되어 통합 텍스트를 이룬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는 비선형적으로 외적 의미와 내적 의미의 두 층위를 가지면서 서로 보완하며 결합한다.

언어텍스트에서 응결성은 생략법, 부분적 회기법과 병행구문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특히 생략법은 지면의 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추론의 과정을 통한 독자들의 인지활성화를 극대화시킨다. 정보성에서는, 수용자들의 기존 인지구조 속에 있는 기존의 사건텍스트 기사를 불러내게 하여 시사만화텍스트의 내용을 재가공하여 이해하게 한다.

의도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의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여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지만, 수용자들은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서 용인성이 성립되거나 되지 않거나 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언어 텍스트와 사건기사 텍스트 등에 대한 다양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텍스트 수용자는 기존 배경 지식과 사건기사 텍스트를 통한 상황맥락 파악 등 다양한 인지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등도 작용하여 보다 큰 텍스트구조를 형성하면서 텍스트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주제어 : 시사만화(cartoons), 응결성(cohesion), 생략법(ellipsis), 회기법(part recurrence), 병행구문(parallelism), 정보성(informativity), 의도성(intentionality)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아르케.
- 권유라(2001), 『시사만화의 은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순(2001), 영상광고의 텍스트성과 구성원리”, 텍스트언어학 11.
- 박용규(2001), “한국 신문만화의 역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7집, 상지대 사회과학연구소.
- 박용한(2004), “입말/글말 텍스트의 스타일 연속체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제45집.
- 보그란테 · 드레슬러(Beaugrande and Dressler)(1981)/김태옥 · 이현호 공역(1991), 『담화 · 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 서옥란(2003), “시사만화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인문학연구』30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서옥란(2005), 『융합 텍스트로서의 대중매체에 대한 텍스트학적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논문.
- 양태영(2000) “시사만화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의미학 6. 한국어의미학회.
- 이석규(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 이성연(2002), “구약 요나의 결속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48집.
- 이성연 · 안정순(2004), “구약 아가의 환연과 대용형 연구”, 『새국어교육』 제67호.
- 이성연 · 안정순(2004), “구약 아가의 회기와 병행구문”, 『한민족어문학』제44집.
- 이현호 외(1997), 『한국 현대회곡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 임지룡(1999), “의미작용과 기호작용의 통합”, 『현대 문법연구』18.
- 최인자(2001), “한국 시사만화의 서사적 특징”, 『내러티브』제4호.
- 오시오 요시타케(1987)/김미랑 역(1996), 『만화의 문화기호론』, 눈빛.
- Brinker. K(1985). 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역락.
- Coseriu. E(1980). 신익성 역(1995), 『텍스트언어학』, 사회문화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extuality of the Cartoons

Lee, Seong-Yeon

Current cartoons consist of two structures: picture text and linguistic text. The former shows static contents as cubic ones, which makes them more concrete. The latter has implicational, abstract characteristics in it. If they were combined, both of them would become a unified text.

Cohesion in a linguistic text had high frequency in ellipsis, parrecurrence, and parallelism.

In view of situationality, a current cartoon text performs a mediation process, which infuses knowledge, faith, and purpose into a unified situational model with which text receivers are faced.

Informativity makes receivers call for, reprocess and understand pre-existing texts in their cognitive structure.

Intentionality is to intensively express the intent of one topic and to show apparent position and attitude, but receivers set up their accep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outlook and position.

There are two kinds of interactive texts: eventual article and text allusion. Therefore, if there were no variou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m, its meaning would be hard to understand. That is because the text receivers experience various cognitive processes such as comprehension of a situational context through original background knowledge and eventual article texts. In this process, the outlook and ethics of each individual receiver can make the texts inferred and understood.

이성연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교수

전화: 062-230-7395(연구실), 019-611-73950836

e-mail: syblee@mail.chosun.ac.kr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